

· 현세문화-여성3
· 문화-여성1.

아울라의 디프 평가

작성자 : 이다.

COME TOGETHER FOR WHAT?

디프는 다소 인위적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보다 일이 우선시되는 현상에 문제제기를 하고, 그 대처 방안 모색하고자 모인 모임이다.

관계 맺기

디프의 구성원들은 각 단체에서 함께 하던 사람들이거나 개인별로 제안을 받아서 참가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그안에서 각 단체별로 더 친화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나중
에 들어온 사람일수록 자기 집단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
이 적었던 것 같다. 함께 하는 시간을 세미나 등에 투자하면서 디프들간의 관계맺기가
수월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 간의 암묵적인 연대감 정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된다. 이후
활동에서 각 단체들이 정상화되면서 풀어갈 일이다. 직국과 디프와의 연대는 바쁜 일정
속에서 욕심만큼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 궁금이가 생각말에서 하루 밤 자료집 구성
을 도왔던 정도... 마니또에게 잘해줄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안타까워 하며 선거 기간을
끝내게 된 것이 유감..

생각 공유 하기

선거 내용, 정책에 대한 공유는 구성원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한 상태여서 디
프들의 불규칙한 참석률에도 불구하고 여러번의 세미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혹은 문화유세나 강의실 유세 등이 강력한 동기가 되어 정책들을 자기 언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책에 관한 토론 회의 자리에서 여전히 디프들과
공유되지 않은 언어들을 사용하거나 함께 얘기해 보지 못한 내용들을 생략하고 진행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소외되거나 침묵하게 되기도 하였다는 의견이다. 앞으로의 세미나에
서도, 또한 학우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밝히는 글을 쓸 때에도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여건
을 마련하기 위해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일이다.

사실은 정책보다도 디프들의 머리 속에 남는 것은 다른 운동조직과의 비교에서 느껴지는
여성주의적 방식에 대한 자부심과 그로 인한 행복감이다. 개인적으로 조직에서 단합을
위해 일개 구성원으로서 동조할 권리만이 남아 있는 기존의 집단 권위 주의에 반감을 느
끼는 친구들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당위성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일상을 두고
운동한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한다.

시간과 공간의 공유

★ 개인적으로 자신의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선거에 참가하지 못했다거나 잠을 내서 서본방
에 와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없었다는 점을 미안해하는 친
구들이 많았다. 선거를 함께하고 있다면 심정적인 지지말고도 항상 스스로의 존재감 필
요성을 느낄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배분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연락, 시간지키기가 허술해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무력감을 느끼는 시간들이 생겨
난 점은 매우 반성해야 할 일인 듯하다.